

## 한국어 굴절접미사 연구

김 형 엽

(고려대학교)

Kim, Hyoung-youb. 1997. A Study on Inflection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3, 77-97. This paper is to show that inflection in Korean should be reconsidered to account for the redundant distribution of a nominative honorific suffix and a nominative case marker in the same wor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morphosyntax the combination of these suffixes in the same word doesn't have to occur in any case. However, as Sells (1995) has shown the two suffixes are allowed to be combined without causing any grammatical problems in Korean.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hese suffixes are not included in the same category in order to support the appearance of these suffixes in the same word. Based on Booij (1995) and Marle (1995) the honorific suffixes such as '-kkeyse, -kkey' will be classified as inherent inflection, while other suffixes such as case markers and topic markers will be classified as contextual inflection. Thus, the combination of an honorific suffix and a case marker would cause no problems because they are included in different categories, which possess different morphological functions. (Korea University at Seochang Campus)

### 1. 머리말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어휘음운론이 제안된 이 후의 형태론은 한국어 단어들이 다른 언어들 못지 않은 형태적 변화들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Ahn (1985)은 단어 형성과 관련된 형태적 현상들이 음운론적인 변화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잘 설명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론 연구들이 단어 형성들 중에서 파생 (derivation)과 합성 (compounding)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굴절접사 (inflectional affix)와 관련된 단어 형상에 대한 연구는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비록 최근에 제기된 굴절현상에 대한 통사론적인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굴절현상에 대하여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주고는 있지만, 굴절현상이 기관의 논저들이 (Anderson 1982, 1988, 1992; Lieber 1992; Perlmutter 1988; Yoon 1991) 설명한 것처럼 모든 굴절현상이 단순히 통사론적으로만 설명되어서는 굴절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

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이론적 배경을 2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3장의 전반부에서는 굴절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접미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를 살펴 보고, 이들 접미사에 대한 통사적인 분석이 간과했던 문제들을 재고해보도록 하겠다. 3장의 후반부에서는 굴절현상과 관련된 한국어 존칭접미사를 새로이 분석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4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서 첫째로는 굴절현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이고, 한국어의 다른 접미사들도 이를 보이도록 하겠다. 둘째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 방법이 3장에서 다룬 존칭접미사 이외에도 다른 접미사를 동일한 범주에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다. 셋째로는 존칭접미사가 단어의 구성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이면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 2. 굴절접미사의 분류

Anderson (1982)의 논문이 이후 형태론에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를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 방법에서는 파생접사가 형태론 모델 (Kiparsky 1982)에서 어휘부 (lexicon)의 단어 형성과 관련되는데 반하여, 굴절접사는 어휘부를 거친 단어들이 통사부에서 이들 접사들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론적 방법을 분리형태론 (split morphology)라고 명명하였다. Lieber (1992)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접사들을 통사적으로만 분석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일컬어 'No Morphology'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접사들이 파생과 굴절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과 굴절 또한 내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파생접사가 어휘부 안에서 제 1단계와 제 2 단계로 분리되기도 하였지만<sup>1</sup>, 굴절접사의 분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Booij (1995), Haspelmath (1995), Marle (1995), Rainer (1995)의 논저들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굴절접미사들도 파생접미사들처럼 다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과거에

<sup>1</sup>기존의 어휘음운론 이론에서는 영어의 경우 파생접사를 Class I, II (Siegel 1974)로 나누거나 Level I, II (Allen 1978)로 나누어 표시하였지만, Mohanan (1982)과 Ahn (1985)은 파생접사 대신 합성어를 subcompound와 cocompound로 나누었을 뿐 굴절접사를 하나의 단계로만 설정하였다. 그러나 Ahn (1985)은 파생접미사의 분류가 필요함을 예로써 보이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동명사화 어미인 '-기'를 설명하는데서 접미사의 분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굴절접미사를 단순히 통사적인 현상으로만 본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양하고 굴절접미사를 좀 더 어휘론적인 측면에 가깝게 두고 보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Booij (1993)는 분리형태론이 굴절접미사를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데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굴절접미사 중에서도 어휘론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분리형태론의 이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Booij (1995)와 Marle (1995)는 굴절접사가 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은 (1)에 잘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inherent inflection'은 파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굴절접사를 가리키며, 'contextual inflection'은 통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순수 굴절접사를 일컫는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접사가 파생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유굴절접사'로 명명하고, 후자의 경우는 '상황굴절접사'로 명명하고자 한다. 고유굴절접사는 비록 굴절접사로는 분류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문맥에만 의존해서는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며, Booij에 따르면 명사의 범주구분,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동사의 시제와 상이 여기에 속한다. 상황굴절접사는 이 접사가 나타나는 어간이 문맥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주변적인 정보로부터 추정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데, 주어나 목적어에 나타나는 동사의 수의 일치를 보여주는 접사, 형용사에 나타나는 일치표시, 명사의 격표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sup>2</sup> inherent inflection

- a. the kind of inflection that is not required by the syntactic context, although it may have syntactic relevance. (Booij 1995:2)
- b. a category which rather demands a specific morphological and/or syntactic context than that it is commanded by syntax; it has more independent status, meaning that it is more

<sup>2</sup>(1)의 내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고유굴절접미사 (inherent inflection)

- a.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접미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 b. 통사적인 환경으로는 설정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소지한 것으로서, 의미상으로는 파생접사와 유사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상황굴절접미사 (contextual inflection)

- a. 문포가 통사적으로 한정되는 접미사이다.
- b. 전형적인 굴절현상을 대표하는 접미사이다.

derivation-like. (Marle 1995:68)

contextual inflection

- a. the kind of inflection that is dictated by syntax. (Booij 1995:2)
- b. a category representing prototypical inflectional one. (Marle 1995:68)

Booij (1995:3)는 Dutch의 굴절접사 중에서 일부 접미사들이 파생접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이들 접미사들이 파생접사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접미사를 파생으로만 행동하는 접미사와 비교하여 이 접미사들이 파생접미사와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음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이 접미사들이 파생접사처럼 합성어 이전에 단어 형성규칙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만일 특정 굴절접미사가 합성어 과정에서 앞서 적용된다면 이것이 비록 굴절접미사이지만 파생접미사로 분류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Booij와 Marle은 Dutch의 복수형접미사가 파생적 특성을 보여주는 고유 굴절접미사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그들은 이 언어에서 복수형접미사가 굴절접미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파생접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2)의 각항은 이 언어의 복수형접미사가 비록 굴절접미사이지만 파생접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2) a. 파생접미사는 분포적인 측면에서 모든 어간에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Dutch의 복수형접미사도 파생접미사들처럼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 b. 복수형접미사를 가진 단어들이 마치 파생접미사가 적용된 단어들처럼 각 부분으로부터 유추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c. 상당수의 복수형 명사들이 파생 과정을 겪은 단어들처럼 복수형 접미사를 제외시킨 독립적 어기 (base)를 갖지 못한다.

위에 나온 복수형접미사의 파생적인 성격들을 잘 보여주는 예들은 (3)에 잘 나와 있다. (3a)는 명사들 중에서 복수형접미사가 첨가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것들을 보인 것이다. (3b)는 복수형어미를 가진 명사들이 단순히 복수형으로서의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모은 것인데, 이 경우에 추가되는 의미는 유형 (instance/type)이다. 이것은 특정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개별적으로 여럿이 있는 것보다는 해당

명사의 의미 범주에 들 수 있는 대상들이 유형별로 존재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bier-en'은 맥주에 여러 종류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맥주가 낱개로서 여럿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c)는 복수형어미를 제외시켜도 남은 부분이 주어진 단어의 어기임을 확인할 수 없는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진 단어들이 항상 복수형으로만 사용될 뿐 단수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3b)에서는 복수형접미사가 '-en'을 제외시키면 명사의 단수형이 복원되지만 (3c)의 예들은 복수형접미사가 제외되면 단어로써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3)<sup>3</sup> a. 물질명사: wol 'wool', hooi 'hay', bloed 'blood'  
 집합명사: kroost 'offspring', vee 'cattle', rommel 'rubbish'  
 추상명사: aandacht 'attention', arbeid 'labour', geluk 'happiness'  
 언어명: Nederlands 'Dutch', Latijn 'Latin'  
 병명: griep 'influenza', bronchitis 'id', koorts 'fever'
- b. 단수형                      복수형  
 bier 'beer'            bier-en 'types of beer'  
 kaz 'cheese'        kaz-en 'types of cheese'  
 groent 'vegetables'        groent-en 'types of vegetables'
- c. Englesen '(the) English', Fransen '(the) French', hurken 'haunches'  
 buren 'neighbours', lendenen 'lions', ledematen 'members'

지금까지 Dutch의 복수형접미사의 분석을 통하여 굴절접미사도 파생접미사와 한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ooij와 Marle은 이 접미사를 고유굴절접미사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의 굴절

<sup>3</sup>영어도 Dutch처럼 분류될 수 있다. a는 각 분류에 속하는 명사들이 별도의 복수형어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다. b는 복수형어미가 붙은 명사들이 '유형'이라는 의미를 별도로 가지는 경우이다. c는 복수형이 붙은 단어의 어기인 단수형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는 것들이다.

- a. 물질명사: meat, wine, bread  
 집합명사: cattle, people, family  
 추상명사: happiness, excitement, vice  
 언어명: Chinese, Japanese, Portuguese  
 병명, 학문: mumps, measles, economics, linguistics
- b. people-s '인간의 유형', wine-s '포도주의 종류', famili-es '여러 가족들'  
 air - airs '공기 - 뿜내는 태도', force - forces '힘 - 군대'
- c. trousers, pants, stockings, gloves  
 scissors, glasses, compasses

접미사들도 (1)에서 본 것처럼 고유굴절접미사와 상황굴절접미사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처럼 굴절접미사를 통사적인 방법보다는 Booij와 Marle이 주장한 것처럼 어휘적인 측면에서 다시금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3.1에서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3.2에서는 한국어의 존칭접미사가 전통적으로 굴절접미사로만 여겨졌지만, 사실은 어휘적인 측면에서 파생접미사로서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3. 굴절접미사의 재분석

#### 3.1 어휘론적 분석으로의 회귀

지금까지의 형태론 연구에서 한국어의 굴절접미사는 대부분 통사적 현상으로서 설명되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굴절접미사로는 주격을 가리키는 ‘-이/가’와 목적격을 가리키는 ‘-을/를’이 있으며, 이들 격표시 접미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 접미사를 수반하는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이 깊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는 형태론의 한 현상으로서 분류되었던 접미사가 통사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론과 통사론을 한데로 연결하는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이것을 근자에 따서는 형태통사론 (morphosyntax)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론의 주된 목적은 단어 내부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변화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 방법은 굴절접미사만을 통사부에 별도로 위치하게 하는 분리형태론에서 많이 사용되었다.<sup>4</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Sells 1995, 1996; Cho & Sells 1995; Chae & No 1996) 보면, 한국어의 굴절접미사들을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부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굴절접미사가 어간에 붙는 과정을 단순히 어간의 이동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이들은 먼저 각 어간과 굴절접미사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설정하고, 각 형태론적 요소들의 행동에 쓰여진 특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어간과 접미사 사이의 조합 뿐만 아니라 접미사가 둘 이상 첨가되는 경우에 접미사들 안에서의 상관 관계도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굴절접미사들의 특성이 단어 형성 과정에서 중시됨에 따라 굴절접미사의 고유한 성질이 따로 기술되었고, 이들 특성에 대한 표기는 어휘부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결과적으로 굴절접미사를 통사론적인 방법이 아닌 어휘론적 방식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또한 Sells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굴절접미사를 단순히 통사적으로만 설명하려는데 문제가 있음을

<sup>4</sup>Anderson (1982), Sugioka (1984), Fabb (1984), Sproat (1985), Lieber (1988)

지적하였는데, (4)는 그가 굴절접미사에 대한 통사적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 예의 특징은 한 단어에 같은 격을 표시할 수 있는 굴절접미사가 둘 이상 온다는데 있다. 최근의 통사적인 정보에 의하면 한 명사는 하나의 격만을 가져야 하며,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문장은 비문으로서 처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예의 경우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을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든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4)<sup>5</sup> [선생-님-들]-께서-만-이-아-시-입니다.  
존칭 복수 존칭(주격) 주격

Sells는 (4)의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명사 어간에 연결되는 접미사들의 자질을 설정하였다. 이 때 각 접미사의 배열상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자질은 'N-SIS'와 'V-SIS'가 있다.<sup>6</sup> 각 접미사들은 이 두 자질에 따라서 한 단어 속에서 적절하게 배열된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접미사든지 이 자질을 소유하게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명사적인 성격을 가진 요소가 나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주격을 표시하는 '-이/'

<sup>5</sup>Sells (1935), Cho & Sells (1995), Chae & No (1996)에서는 '[ ]' 표기 내부의 요소를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간주하고, 접미사들은 이 표기 내에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였다. Sells (1995: 294)와 Chae & No (1996: 9)에서는 '[ ]'에 들어있는 것을 명사의 어근으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님'과 '-들'이 명사와 관련된 접미사의 내부에 항상 위치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복수형접미사인 '-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첫째는 '-들'의 분포성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접미사는 비단 명사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허웅 (1995:1401)에 언급하였듯이 이 접미사는 모든 품사와 어우러져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Sells (1995)가 주장한 것처럼 '-들'이 'Noun<sub>root</sub>'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들'이 반드시 다른 접미사의 내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 ]'의 외부에 위치한 접미사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와 '[선생님]-께서-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Chae & No (1995)가 주장한 '[ ]' 내부의 명칭인 'Der Suffix'와 'Infl Suffix'는 표기 외부에 나온 접미사들과의 개념에서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많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명사 다음에 나오는 접미사들을 굴절접미사로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님'에 대한 파생접미사로서의 분석은 이 접미사로 하여금 전혀 품사의 전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으로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허웅 (1995)에서는 이처럼 명사 뒤에 오는 접미사들을 위치에 근거하여 '뒷가지'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 후에 발생시키는 결과에 따라서 품사상의 분류를 가미하였다. 이것은 국어의 접미사들이 처음부터 파생이나 굴절이냐 하는 것보다 우선 위치를 설정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형태의 성격에 따라서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up>6</sup>Cho & Sells (1995:135)에서는 자질의 표시를 위하여 Bresnan (1982)의 어휘기능문법 (LFG)을 따르고 있다.



가'는 'V-SIS'를 소유하도록 설정되며, 이 접미사 다음에 나오는 요소는 반드시 이 자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4)에서는 주격표시인 '-이' 다음에는 동사가 옴으로써 주격표시에 설정된 자질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 예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유격접미사인 '-의'는 'N-SIS'를 소유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접미사 다음에 나오는 요소는 명사적인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sup>7</sup> 즉 이들 자질들은 각 접미사에 주어지서 이들 접미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줌으로써 접미사들과 주변의 요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Sells (1995)와 Cho & Sells (1995)는 (4)를 분석함에 있어 존칭접미사인 '-께서'와 주격접미사인 '-이' 모두에게 [TYPE: V-SIS] 자질을 줌으로써 존칭접미사가 동일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만'의 앞에 위치하고, 주격접미사인 '-이'가 동사인 '다십니다' 앞에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sup>8</sup> (5)는 Sells이 (4)에 주어진 예를 각 접미사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sup>9</sup>

<sup>7</sup>Cho & Sells (1995:154)를 보면, '나만의 돈'에서 '-의'의 자질인 N-SIS가 '나만의'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의 자질로 상향삼투됨으로써 '돈'이라는 명사가 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었다.

나 - Ø [TYPE:V-SIS] - 만 [TYPE:V-SIS] - 의 [TYPE:N-SIS] 돈

<sup>8</sup>이 방법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접미사보다도 '-의'가 지니고 있는 N-SIS가 문제가 되는데 다음의 예를 보면 a에서는 이 접미사 다음에 명사 대신 형용사 ('다정한')가 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b에서는 V-SIS 자질을 소유하는 주격조사인 '-이/가'등이 '-의'로 대체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와 '-가'의 자질이 N-SIS와 V-SIS로서 상반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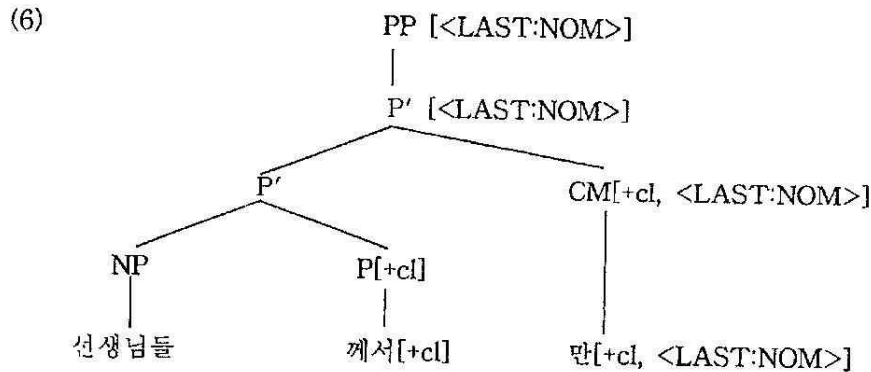
- a. 순희-의 다정하-는 친구  
                   형용사 관형형 명사  
 b. 순희-의 사랑하-는 동생들  
                   형용사-관형형 명사  
       순희-가 사랑하-는 동생들

<sup>9</sup>이 예에 나온 용어들 중에서 X-LIM과 Z-LIM은 양동희 (1972)에 제시된 용어로서 명사형에 붙어 나타나는 접미사들을 종류별로 구분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Sell (1995), Cho & Sells (1995), Chae & No (1996) 등 대부분의 한국어 접미사에 대한 분석은 양동희 (1972)에 주어진 접미사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음과 같다.

Postpositions	Conjunctives	Delimiters	
		X-LIM	Z-Lim
-에게(서)	-하고, -와/과	-만	-은/는
-에(서)	-보다	-까지	-(이)라도
-께서	-(이)나	-마저	-이/가
-께	-부터	-조차	-을/를







### 3.2 한국어의 고유굴절접미사

#### 3.2.1 파생적인 굴절접미사

지금까지의 설명을 살펴 보면 접미사를 기존의 이론들이 주장하였듯이 통사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어휘론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어에서도 이들 접미사들을 어휘론적인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형태론적인 현상에 대한 통사적인 이론들이 간과했던 부분으로서 한국어의 접미사들 중에 고유굴절접미사로 재분류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존칭접미사인 ‘-께서’와 ‘-께’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끌어가도록 하겠다.

이들 접미사들이 다른 접미사와 달리 고유굴절접미사로서 구분될 수 있음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파생접사로서의 성격 때문인데, 다음에서는 이들 접미사들 어떤 이유로 파생접사로서 분류될 수 있는지를 (1)과 (2)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께서’와 ‘-께’의 존칭접미사들이 파생접사로서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2a)에 지적인 것처럼 모든 명사에 이 접미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접미사들이 붙는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존칭의 높낮이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 사회적인 계급, 다수의 대상, 상대방에게 대한 호칭으로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된 명사 이어야만 이들 접미사가 올 수 있다.<sup>11</sup> 다음의 예는 이들 접미사들이 올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sup>11</sup>가족 명칭에서 ‘아들, 딸, 며느리’ 등이 ‘아드님, 따님, 며느님’으로 바뀌어 존칭접미사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족의 당사자들에 대한 예우보다는 그들의 부모에 대한 높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 (7) a.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형, 시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아우, 며느리  
       b. 사회적 계급: 교수, 황제, 사장, 주인, 변호사, 장군  
       \*학생, 신하, 사원, 하인, 범인, 병사  
       c. 다수의 대상: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 여성들, 남성들  
       d. 상대방에 대한 호칭: 어른, 부인, 내외, 스님  
       \*아이, 아내, 부부, 중  
       e. 초자연적인 존재: 옥황상제, 용왕, 선녀, 산신령

둘째로, 존칭접미사들은 (2b)처럼 주어진 명사에 '의인법'(personification)의 특수한 의미를 보태준다. 이 접미사가 붙은 명사가 비록 인간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존칭접미사를 더함으로써 인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이런 경우는 신화나 동화처럼 이야기 내용에 주로 나타난다.

- (8) {히님, 달님, 별님, 바람님, 꽃님, 하늘}-께 여쭙어 봅시다.  
       {사자님, 여우님, 호랑이님, 독수리님}-께 음식을 바쳤습니다.  
       {비, 눈}-께서 내리시는구나.

세째로 존칭접미사는 자신을 수반하는 명사들 내부에 특수한 접미사들이 위치하도록 한다. 이들 특수접미사들은 다음에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존칭접미사를 수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존칭접미사를 생략하고 쓰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교육시킬 때는 이들 접미사 다음에는 존칭접미사를 꼭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sup>13</sup>

- (9) 그 여자-분-께 알려야만 한다.  
       어더-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진란때 충무-공-께서는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셨다.  
       충선-왕-께서는 한국사의 한 인물이다.  
       그 임금-님-께서는 어떤 옷이던 어울리지를 앓았다.

<sup>12</sup>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의인법이 적용되어 존칭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명사 말미에 존칭의 의미를 더해주는 '-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존칭접미사에 의한 의인법은 자연현상과 연관되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거나, 동물 중에서도 지배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sup>13</sup>김민수 (1981)

넷째로 존칭접미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격에 대한 특성보다는 이들 접미사를 수반하는 명사의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명사 다음에 나오는 접미사들 중에서 존칭접미사 이외에 어떤 접미사들도 같은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접미사가 동일한 단어 내부에 동시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예는 존칭접미사에 속하는 ‘-께서’와 ‘-께’가 같은 격의 접미사인 ‘-이/가’와 ‘-에’를 중복으로 허용하는 것을 보인 것이다. (10a)는 주격을 가리키는 존칭접미사 ‘-께서’가 주격만을 가리키는 ‘-이/가’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10b)는 간접목적격을 가리키는 ‘-께’가 동일한 격으로 사용이 가능한 ‘-에’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다.<sup>14</sup>

- (10) a. 할아버지-께서-만-이  
 의원님들-께서-부터-가  
 선생님들-께서-마다-가  
 학부모들-께서-조차-가  
 주민들-께서-까지-가  
 b. 할아버지-께-까지-에도  
 할아버지-께-까지-엔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어의 존칭접미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파생접미사로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측면에 대한 설명은 (11)에 요약되어 있다.<sup>15</sup>

- (11) a. 존칭접미사의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  
 b. 존칭접미사가 수반된 단어는 명사 자체로만 예측할 수 없는 별도의 의미를 보여준다.

<sup>14</sup>(10a,b)에 주어진 예는 허웅 (1995:1450)과 김승곤 (1992:56-57)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특히 (10b)는 다음의 주어진 예를 근거로 유추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는 그런 경지에까지도/까지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를 위한 일이라면 지옥에까지든/까지엔들 못 가랴?

<sup>15</sup>한국어 존칭접미사에 대한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석 중에 하나는 이 접미사를 문장내에서의 일치관계 (agreement)로 보는 것이다. 즉 명사에 첨가되는 존칭접미사를 용언 내부에 나타날 수 있는 존칭접미사인 ‘-시-’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칭접미사를 단순히 일치관계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의연 (1994)은 존칭접미사들의 분석을 형태-통사 요소에만 의존하는 일치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각주 17 참조)

- c 존칭접미사는 자신이 첨가되는 어근의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굴절접미사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 d 존칭접미사는 다른 접미사들과 달리 기능이 유사한 다른 접미사의 중복적인 사용을 허용한다.

다음 장에서는 비록 굴절접미사이지만 파생적 접미사로서 분류될 수 있는 존칭접미사가 여전히 굴절접미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3.2.2 고유굴절접미사의 굴절성

굴절접미사는 파생접미사와 달리 통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derson (1982)에서는 Breton어에서 일치관계 (agreement)에 해당하는 굴절접미를 통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굴절접미사가 파생접미사와 문법 모델 내부에서 별도로 설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영어의 경우에도 굴절접미사가 통사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있는데, 주어와 동사의 일치관계를 보이는 3인칭 단수 형태소인 '-s'가 바로 그것이다. 형태통사론에서는 영어의 일치관계 접미사를 통사부에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장은 한국어의 존칭접미사가 3.2.1에서 보였듯이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치관계의 접미사처럼 통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서 Breton이나 영어에서처럼 일치관계를 보이는 접미사는 존칭접미사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12)는 한국어에서 존칭접미사가 일치관계를 보이는 예들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12a)는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에 '-께서'가 나올 때 같은 문장의 동사에 '-시'가 나오는 것을 보인 것이다.<sup>17</sup> (12b)는 간접

<sup>16</sup> 예를 들어 '-은/는'과 같은 접미사는 자신들이 첨가되는 어근의 내부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에조차에도 관계 없이 분포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sup>17</sup> 조 의연 (1994)은 한국어의 존칭에 대한 일치관계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에 나타나는 '-시'가 주어에 존칭접미사인 '-께서'가 없어도 사용되어도 비문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존칭 접미사 없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예를 보인 것이다.

김선생님이 오-시-었다.  
아버지가 오-시-었다.  
김선생님에게 그 일을 하-시-라고 부탁했다.  
작은 삼촌에게 우리더러 일을 하게 하-시-라고 부탁했다.

위 논문에서는 '-시'가 나타나는 현상을 형태-동사의 요소로만 보기 보다는 의미-화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함을 주장하여, 위에 주어진 문장들이 일치관계를 보이지 않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에 '-께'가 있는 경우 동사에 '-시'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과 앞의 예의 차이점은 동사가 사동형 (caus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께'가 붙은 명사는 문법적으로는 간접목적어로 보이지만, 실제의 의미로는 동사의 행동주가 된다. (12c)는 a, b와는 달리 존칭접미사와 일치관계를 가리키는 '-시'가 존칭접미사를 수반하고 있는 명사에 앞서서 위치한 경우이다. 이럴 때도 존칭접미사가 있는 명사를 중심어로 하여 앞에 위치한 관형형에 존칭의 일치관계를 나타내는 '-시'를 삽입할 수 있다. (12d)는 존칭접미사가 오는 요소가 같은 구문 내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단어의 형태를 결정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문 중의 한 요소에 존칭접미사가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명사형이 존칭을 나타내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 때 전환된 형태는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는 '밥'과 '진지' 사이의 전환이 존칭접미사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 (12)<sup>18</sup> a. 아버지-께서; 어제 학교에 오-시-었다.  
 선생님-께서; 너더러 오라고 하-시-더라.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었다.  
 b. 우리는 아버지-께; 그 일을 하-시-게 했다.  
 우리는 선생님-께; 네가 일을 하게 하-시-라고 부탁하였다.  
 우리는 어머님-께; 아버님-께; 일을 하-시-게 하-시-라고 부탁했다.  
 c. 가-신; 어른-께서; 남기신 말씀을 명심하자.  
 용맹하-신; 충구공-께; 바칩니다.  
 d.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시고 계시다.  
 (? 아버님-께서 밥을 먹고 있다.)  
 우리는 아버님-께 진지를 드시도록 하였다.  
 (? 우리는 어머님-께 밥을 먹게 했다.)

명사에 표시되는 존칭접미사가 통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분류되고 통사적인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사실은 각 존칭접미사와 격조사인 '-이/가, -을/를'이 상호 교환되어 나타나지 않는데서 알 수 있다. 즉 주어와는 연관을 맺고 있는 '-께서'는 주격조사인 '-이/가'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간접목적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께'는 주격조사인 '-이/가'와는 어울

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sup>18</sup>이 예에 표기되어 있는 'i, j'의 아래첨자들은 어떤 존칭접미사가 각 동사내에 있는 '-시'와 일치하는 지를 보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존칭접미사와 동일한 아래첨자를 소지하고 있는 '-시'는 그 접미사와 일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리질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격이 항상 통사적인 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격은 통사적 구조에서 항상 주어와 연관되며, 목적격은 동일한 구조에서 항상 목적어와 연관을 맺게 된다. 따라서 '-께서, -께'가 특정 격조사와 항상 어울린다는 것은 한국어의 존칭 접미사가 통사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sup>19)</sup>

- (13)<sup>20)</sup> \*아버님-께서-만-을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까지-를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부터-를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아버님-께-만-이 알려 드렸습니다.  
 \*아버님-께-까지-가 알려 드렸습니다.  
 \*아버님-께-부터-가 알려 드렸습니다.

존칭접미사의 통사적인 성격은 위에 언급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존칭접미사가 수반된 명사는 대명사로서 받는 경우 '분'으로 표기된다. 이와 같은 대명사는 존칭접미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14a)는 주어에 존칭접미사가 사용된 것을 대명사로 받는 것이고, (14b)는 간접목적에 존칭접미사가 사용된 것을 같은 대명사로 표기한 것이다.

<sup>19)</sup> 존칭접미사가 오는 명사들이 존칭접미사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주격조사인 '-이/가'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허웅(1995)에서는 이 예를 별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분류하고,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가'라는 접미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가 아니다'라는 구문에서만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아버님-께서-부터-가 아니라, .....  
 아버님-께-부터-가 아니라, .....  
 아버님-께서-만-이 아니라, .....  
 아버님-께-만-이 아니라, .....

<sup>20)</sup> 여기 나온 예들의 옳고 그름은 주어진 예제들을 다음의 문장에 넣어 봄으로써 진위를 알 수 있다.

\*아버님-께서-만-을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까지-를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부터-를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님-께-만-이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님-께-까지-가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님-께-부터-가 알려 드렸습니다.



- (14) a. 아버님께서<sub>j</sub> 어제 가셨다. 우리는 그 분<sub>j</sub>을 배웅하러 갔다.  
           내 아우가<sub>j</sub> 어제 떠났다. 우리는 그<sub>j</sub>를 배웅하러 갔다.  
           \*내 아우가<sub>j</sub> 어제 떠났다. 우리는 그 분<sub>j</sub>을 배웅하러 갔다.  
       b. 나는 아버님께<sub>j</sub> 편지를 썼다. 나는 그 분<sub>j</sub>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아우에게<sub>j</sub> 편지를 썼다. 나는 그<sub>j</sub>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아우에게<sub>j</sub> 편지를 썼다. 나는 그 분<sub>j</sub>의 안부를 물었다.

지금까지 존칭접미사의 굴절형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존칭접미사를 굴절접미사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15)에 잘 요약되어 있다.

- (15) a. 존칭접미사가 오는 명사는 동일한 구문에서의 다른 부분과 일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 존칭접미사는 항상 일정한 격조사와 어울림으로써 통사적으로 분석되어야함을 보여주었다.  
       c. 존칭접미사가 오는 명사는 동일한 높이의 의미가 담긴 대명사로만 받아야 올바른 문장을 이룰 수 있다.

## 4. 결론

### 4.1 존칭접미사의 특성

앞서 3.2장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어의 존칭접미사는 파생적인 성격과 굴절적인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존칭어접미사 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Marle (1995)은 이처럼 파생과 굴절의 양쪽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접미사를 표기하기 위하여 (16)과 같은 도표를 이용하였다. 이 도표에 의하면 어떤 접사이든지 파생과 굴절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은 고유굴절 (inherent inflection)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존칭접미사는 3.2.1에서 처럼 파생형처럼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3.2.2에서처럼 통사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굴절접미사로 구분될 수 있다.

(16)

	inherent inflection	contextual inflection	derivation
independent content	+	-	+
participation in syntax	+	+	-

## 4.2 기타 고유굴절접미사

각주 8에서 존칭접미사인 ‘-께서, -께’는 나머지 접미사인 ‘-에서, -하고, -에게, -한테, -(으)로’와 함께 ‘Postposition’로서 분류되어 있다. 이 장에서의 의문은 이들 접미사들도 존칭접미사처럼 고유굴절접미사로서 분류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한정된 주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김 승곤 (1992)의 국어조사에 대한 분포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들 접미사들이 다른 부류 (Conjunctives, XLim, ZLim)에 속하는 접미사들과 다른 분포를 보이지만, 존칭접미사와는 동일한 분포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접미사들이 ‘XLim’에 속하는 접미사인 ‘-만, -까지, -마저, -조차, -밖에’와 어울리는 경우에 나타나는 분포성과 ‘-보다, -처럼, -같이’ 등의 ‘Conjunctives’에 속하는 접미사들이 동일한 접미사와 조합을 이루는 분포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7)에 나온 도표는 김 승곤 (1992)에 나온 접미사 조합의 도표를 근거로 하여, ‘Postposition (Post) -- XLim’과 ‘Conjunctives (Conj) -- XLim’의 조합 분포를 따로 분리하여 보인 것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Postposition’에 속한 접미사들은 존칭접미사와 더불어 거의 같은 조합 분포를 보이지만, 다른 부류에 속하는 접미사들은 존칭접미사와 아주 상이한 조합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존칭접미사와 함께 ‘Postposition’에 속한 접미사들이 존칭접미사처럼 고유굴절접미사로서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17)

Post \ XLim	-만	-까지	-마저	-조차	-밖에
--께서	께서만	께서까지	께서마저	께서조차	께서밖에
--에서	에서만	에서까지	에서마저	에서조차	에서밖에
--하고	하고만	하고까지	하고마저	하고조차	하고밖에
--에게	에게만	에게까지	에게마저	에게조차	에게밖에
--한테	한테만	한테까지	한테마저	한테조차	한테밖에
--(으)로	으로만	으로까지	--	으로조차	으로밖에
Conj					
--보다	--	(?)까지보다	--	--	--
--처럼	처럼만	(?)까지처럼	--	--	--
--같이	같이만	(?)까지같이	--	--	같이밖에

(17)에 제시된 점미사들을 (16)에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다시 분류하면, 'Postposition'은 고유굴절점미사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Conjunctives, XLim,'은 상황굴절점미사로 분류할 수 있다.

(18)

	inherent inflection (postpositon) 께서, 에서, 하고 에게, 한테, 으로	contextual inflection (conjunctive, XLi m) 보다, 처럼, 같이 만, 마저, 조차	derivation
independent content	+	-	+
participation in syntax	+	+	-

## 4.3 접미사의 재분류의 필요성

이 논문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명사 다음에 위치할 수 있는 접미사들을 기존의 이론들과 달리 어휘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18)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접미사들을 재분류함으로써 (4)에서 제시된 동일한 기능의 접미사들의 중복 배치가 더 이상 중복이 아니며, 동일한 기능의 접미사로만 여겨졌던 존칭접미사의 주격형과 격조사로서의 주격형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존칭접미사는 비록 주격으로서 별도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지로는 이 접미사가 격만을 가리키는 접미사와는 서로 고유굴절접미사와 상황굴절접미사에 속함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명사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4)의 구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을 요구하며, 새 분석의 구성은 (19)와 같다.

(19)<sup>21</sup> [[선생 - 님 - 들] - 께서] - 만 - 이

위 구조의 특징은 존칭접미사를 나머지 접미사들로부터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존칭접미사는 파생적인 성질 (3.2.1을 참조) 때문에

<sup>21</sup>Chae & No (1996)에서 '[ ]' 내부의 구조를 Stem-Derivational Suffix-Inflectional Suffix로 하였다. 이 구조에 'inherent inflection'을 Derivational Suffix가 아닌 Inflectional Suffix 다음에 넣어야 한다. 그 이유는 'inherent inflection'의 굴절형으로서의 특징이 이들을 서로 가까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 접미사가 'inflectional suffix'와 서로 위치를 바꾸어 'derivational suffix'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에 오는 접미사들과 달리 분리되지만, 존칭접미사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굴절적인 성질 (3.2.2를 참조)로 인하여 앞서 나온 다른 접미사들과 같은 범주에 들지 못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비단 존칭 접미사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칭접미사와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다른 접미사의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민수. 1981. 국어문법론. 서울: 일조각
- 김승곤. 1992. 국어 토씨 연구. 서울:서광학술자료사.
- 신수송. 1991. 통합문법이론의 이해. 서울:한신문화사
- 유재원. 1935. 우리말 역순사전. 서울:경음사.
- 조희연. 1994. "국어 주어 존대일치의 두 형식과 화용적 특징," 언어 19.2, 599-620.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 문화사.
- Anderson, Stephen R. 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571-612.
- , 1988. "Inflection," in Michael Hammond and Michael Noonan (eds.), *Theoretical Morphology: approaches in Modern Linguistics*, 23-43. NY: Academic Press.
- , 1992. *A-Morphous Morphology*. Cambridge Uni. Press.
- Ahn, Sang-Cheol.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Booij, Geert. 1993. "Against split Morphology," *Yearbook of Morphology*, 27-49.
- , 1995. "Inherent versus contextual inflection and the split morphology hypothesis," *Yearbook of Morphology*, 1-16.
- Bresnan, Joan.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MIT Press.
- Chae, Hee-Rhak and Yongkyoon No. 1996.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those with syntactic Relevance," ms. read at ICKL.
- Cho, Young-mee Yu and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119-174.
- Fabb, Nigel. 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ertation, MIT.
- Haspelmath, Martin. 1995. "Word-class-changing inflection and morphological theory," *Yearbook of Morphology*, 43-66.
- Kim, Hyoung-youb. 1996. "Notes on morphosyntactic approach from phonological

- perspectives,"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39-46.
- Lieber, Rochelle.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Uni. of Chicago.
- Perlmutter, David M. 1988. "The Split Morphology Hypothesis: Evidence from Yiddish," in Michael Hammond and Michael Noonan (eds.), *Theoretical Morphology: approaches in Modern Linguistics*, 79-100. NY: Academic Press.
- Rainer, Franz. 1995. "Inflection inside derivation: evidence from Spanish and Portuguese," *Yearbook of Morphology*, 83-92.
- Scalise, Sergio.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 Sells, Peter. 199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26.2, 277-325.
- , 1995. "Case, Categories and Projection in Korean and Japanese," draft for SICPGG Workshop.
-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Blackwell.
- Sproat, Richard.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 van Marle, Jaap. 1995. "The Unity of morphology: on the interwovenness of the derivational and inflectional dimension of the word," *Yearbook of Morphology*, 67-82.